

소통과 공감을 위한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방법
- 창의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지도방법 -

LESSON 1.

창의적인 글쓰기의 어려움

LESSON 2.

창의적인 글쓰기의 실제



1. 글쓰기 과정

1) 글쓰기의 중요성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글쓰기는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이나 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합니다. 특히, 글은 필자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소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둘째, 글쓰기는 사고력 개발을 촉진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분석적, 종합적 사고력을 높은 수준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글쓰기는 학습의 도구입니다. 글쓰기는 모든 학습 상황에서 해당 교과목의 학습을 촉진하고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글쓰기는 자기 숙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쓰기는 필자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글쓰기는 다른 언어 기능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글쓰기는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 도움을 줍니다.

<출처 : 이재승,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2002, 14쪽>

2)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의 쓰기 과정

그렇다면 글쓰기 과정은 어떠할까요? 글쓰기 과정은 글쓰기의 숙련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글쓰기의 숙련도에 따라,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숙한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글쓰기를 싫어하는 미숙한 필자들은 계획하기 단계에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즉, 글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글의 내용을 구상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과정에 노력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막연하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글쓰기를 미룹니다. 또한 글쓰기에 동반되는 의사소통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될 사람은 누구인지, 독자는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을 기대할 것인지,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막연한 생각의 단편만을 자기 중심으로 쏟아낼 뿐입니다.

미숙한 필자는 첫 문장을 시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쓰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또한 완벽한 초고를 써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에만 의존해서 글을 씁니다.

미숙한 필자들은 발상에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실제로 글을 쓰는 데 시간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앉은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중심으로 글을 완성해 버립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서 글쓰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글을 꼼꼼히 고쳐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초고가 그대로 제출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능숙한 필자는 글쓰기 과정 자체를 일련의 목표 지향적 활동으로 파악합니다. 이에 따라 영감에 의존한다거나 처음부터 완벽한 초고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업 구상 단계부터 자기 나름대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글의 핵심적 주제를 설정하고 발상을 전개합니다.

능숙한 필자는 일단 글쓰기의 주제와 방향이 잡히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찌감치 글쓰기 과정에 착수

합니다. 특히, 이들은 계획하기 단계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전략적으로 찾아서 읽고 이를 바탕으로 틈틈이 메모를 하고 개요를 작성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사고를 자료를 찾아서 읽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능숙한 필자는 미숙한 필자와 달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의사소통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과제를 부과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글을 읽게 될 독자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 이 글을 쓰는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가닥을 잡아 나갑니다.

능숙한 필자들은 완벽한 초고 쓰기 전략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에 매달리지 않고, 고쳐 쓰기를 염두에 두면서, 글에서 해야 할 이야기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 초고 형태로 글을 씁니다. 미리 마련된 글의 개요와 메모에 의지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글이 좀처럼 원래 목표했던 중심 생각에서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능숙한 필자들은 계획하기 단계 못지않게 고쳐 쓰기 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등의 기계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낱말을 적절하게 썼는지, 문장을 어법에 맞게 썼는지, 단락을 중심으로 사고를 제대로 전개해 나갔는지, 주제 구성과 관련하여 글의 내용적 통일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정합니다.

2. 창의적인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

1) 학습자 요인

그렇다면,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의 특성에 비추어 창의적인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들은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자체가 부족합니다. 글쓰기를 하려면, 특정 주제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이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쓰기 과정에서 줄곧 쓸거리의 부족에 시달립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쓸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글쓰기가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둘째, 학습자들은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여 효율적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학습자는 글쓰기 과정에서 글의 질적인 완성도를 추구하기보다, 글쓰기 과제 자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는데 방점을 둡니다. 이로 인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수집에 매진하기보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지식에 의존하여 글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제한된 시간에 글을 완성할 수 있으나, 글의 내용 자체가 상투적이고 진부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결국 글쓰기 과정에서 발상의 부심함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신체적인 측면도 글쓰기에 영향을 줍니다. 중·고등학생은 다소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글을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초등학생은 손에 연필을 쥐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다소 버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도, 글을 쓰는데 다소 힘에 부치는 학생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을 쓰라고 하면, '아~~'소리가 먼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글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2) 교육 여건

한편 교육적 여건도 창의적인 글쓰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선, 학습자들에게 창의적인 글쓰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

이 읽고, 많이 생각해야, 머릿속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여건상, 모든 글쓰기 과제는 수업 시간 안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초고본이 제출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시간에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 내에 글을 마무리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고쳐 쓰기에 공을 들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글쓰기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학습자가 창의적인 글을 쓰려면, 자신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급에서 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교사가 학습자의 글을 충실하게 읽고 의미있는 피드백을 제공해줄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창의적인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의적인 글쓰기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

창의적인 글쓰기의 실제

1.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발상 지도 방안

1) 발상 과정에서 과제 수행 조건 설정의 필요성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뭐 가지고 써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실은 당혹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쓸거리를 생성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선생님, 뭐 가지고 써요?”

이런 질문은 학생들의 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학생들의 글 대부분은 내용 측면에서 참신하기보다 평범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머리를 싸매며 썼지만, 정작 결과물은 이런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학생들은 자신의 글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참 재미있지요.

우선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상이 평범하고, 익숙하고, 때로는 상투적이고 진부함으로 연결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인지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결과에 만족하고 문제의 종결을 추구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 해결보다 ‘효율적’ 해결을 선호합니다. 인간은 문제 상황의 특정한 단서에 주목하고, 기존의 익숙한 지식이나 개념 체계들에 의존하여 문제의 손쉬운 해결을 시도합니다.

인간의 인지적 성향은 글쓰기 과정에서 발상의 상투성이나 진부함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학습자들은 글쓰기 과제의 창의적 해결보다 효율적 해결을 지향합니다. 이에 따라 어떤 글쓰기 주제가 주어지면, 학습자는 우선 그 주제와 관련하여 쉽게 인출 가능한 지식이나 정보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 속에서 의미없이 나열합니다. 이런 식의 효율적 글쓰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글쓰기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인 셈입니다.

결국 학습자에게 창의적인 글쓰기를 지도하는 방안은 간단합니다. 글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제약 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창의성의 발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창의성은 과제의 제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현됩니다. 그런데 제약 수준이 낮을수록, 과제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창의성 발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약 수준이 높을수록, 과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을 경우 창의성 발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자가 쉽게 충족하기 어려운 과제 수행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학습자에게 글쓰기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과제 수행 조건이 발상 과정에서 창의성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광고 카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제한된 시간과 지면 안에서 메시지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는 것입니다. 광고에 동반된 의사소통적 제약은 제작자의 창의성을 이끌어냅니다. 동시에 광고 카피의 상투성과 진부함을 방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다면, 광고 제작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는 필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만 비로소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방은수, "창의성 발현을 위한 이야기 쓰기 과제 구성 연구 : 과제 수행 조건 설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9집, 2019, 185~212면.>

2) 과제 수행 조건 설정 방식

그렇다면, 창의적인 발상을 유도하는 과제 수행 조건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나 내용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둘째, 자신의 지적, 경험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약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제 수행 조건 설정 사례를 살펴볼까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생일날에 축하편지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축하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정말千篇일률적입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야, 생일 축하해. 네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편지 내용이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쓰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생일 축하해라는 말 쓰지 말 것. 둘째, 사이 좋게 지내자라는 말 쓰지 말 것. 셋째, 장난스럽거나 욕하는 말 쓰지 말 것. 넷째, 글자는 100자 이내로 쓸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자, 학생들이 처음에는 반발했습니다. 매우 어렵다고 말이죠. 하지만 학생들이 이내 잠잠해지더니, 어떻게 이 제약 조건을 충족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편지들이 모두 참신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전의 진부함이나 상투성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문종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글쓰기 과제 수행 조건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쓰기 과제에서는 어떤 과제 수행 조건이 설정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선 학생들이 이야기 과제를 쓸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사건이나 내용, 혹은 막장 드라마 식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과제 수행 조건으로 '이야기의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아야 함'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제약 조건이 있으면 좋을까요? 초등학생들은 결말 부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식의 표현을 잘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과제 제약 조건을 설정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과제 수행 조건으로 '결말 부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식의 표현을 절대 쓰지 말 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자들의 발상을 진부하고 상투적인 방식으로 이끄는 요인들을 미리 탐색해서, 제약 조건으로 세세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창의적 글쓰기 과정에서 표현 지도 방안

글쓰기 과정에서 표현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 정보, 논리, 감정, 생각이 훌륭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글솜씨가 늘지 않습니다. 문제는 표현 과정에서 진부함과 상투성에서 멀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끔씩은 제목과 첫문장만 읽어도, 마지막 문장을 짐작할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읽자마자, 흥미가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쌓인 내용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자신의 생각을 개성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의 형식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글의 제목은 매력적인 얼굴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매력은 중요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학습자들이 생각보다 제목의 중요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본문 내용과 관련지어 제목을 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제목은 일차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의없는 제목은 독자에게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현 과정에서 어떤 제목이 좋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내 글에 매력적인 제목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매력적인 제목을 구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은 글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무언가 시적인 면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목을 짓기 위해, 평소에 인상 깊게 봤던 영화나 드라마, 연극의 제목을 활용하거나, 때로는 소설이나 에세이에서 유명한 문구, 영화 속 유명한 대사를 활용하곤 합니다. 이런 제목을 적절하게 변주한다면,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짓는데 수월합니다. 제가 얼마전 학생들에게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글을 쓰게 한 적이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탉이 울어도 망하지 않는 사회, 별에서 온 공주님, 슈퍼맨이 돌아왔다, 82년생 김지영의 유년기

두 번째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은 항상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 이유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글의 메시지가 가장 응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문 작가들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쓰기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항상 되도록 짧게, 그리고 인상 깊게 씁니다. 첫 문장에서는 필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질수록, 첫 문장에서 드러내려는 필자의 의도가 흐릿해집니다. 첫 문장은 글의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첫 문장에서 제기한 필자의 의도를 받아내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전망을 드러내거나, 혹은 글 전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래 예시는 공감을 주제로 한 글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문장 :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문장 : 마음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말라. 물질은 나눌수록 나눴셈이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곱셈이다.

셋째, 문장은 되도록 단문으로 작성합니다. 단문이란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보면, 문장 안에 주어가 두 개이거나 혹은 주술 호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호흡이 지나치게 긴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들은 독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장은 되도록 짧게 씁니다. 불가피하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문장은 최대 7어절 안으로 마무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과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재미와 공감이 가득한 책이었으며, 결국 주인공이 성장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장면은 오히려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기에 참으로 개운한 책이었다.

이 문장은 3줄에 걸쳐 27어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진짜 주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단문으로 바꾸어 볼까요?

이 책은 나에게 공감과 재미를 주었다. 주인공의 모습이 나의 과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 장면은 주인공이 성장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네 번째는 문단입니다. 한 문단에는 꼭 한 가지 요지를 중심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글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기면, 문단 자체가 너무 무거워집니다. 때로는 A4 1쪽을 한 문단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면, 그만큼 문단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한 문단에서 의미적으로 구분되는 내용들은 따로 묶어서 다른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독, 다상량, 다작.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될 때, 창의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나의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글은 틀에 박힌, 진부하고, 상투적인 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나만의 시각과 색깔로 글쓰기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들도 함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